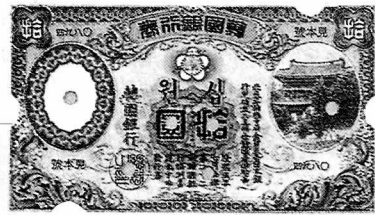


화폐를 장악하려는 인간들의 욕망과 투쟁의 역사

돈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김학은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돈의 역사는 역사시대와 함께 시작됐다. 문명의 수단이 석기에서 청동기, 철기로 바뀌면서 돈의 재료는 조개껍질이나 돌에서 금속 그리고 종이로 바뀌어왔다. 금속으로는 금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는데 그 이유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인류는 여러가지 화폐제도를 고안해냈다.



지폐는 1902년에 나온 한국의 십원권. 동전은 시계방향으로 상평통보 당이전, 로마 네로시대 동화, 고대 그리스 시대 은화. 칼모양의 돈은 중국 제나라시대 도폐 반수도.



기록이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부른다. 선사시대는 역사시대보다 길다. 시간의 순서로 보면 대체로 선사시대가 역사시대보다 앞선다. 돈의 역사 역시 돈이 없던 역사보다 짧다. 그러나 시간의 순서는 서로 교차한다.

1997년 영국 대영 박물관의 윌리엄스가 펴낸 《Money A History》를 보면 고대 페르시아에서 이미 금속화폐를 사용했고 중국에서도 왕망 시대에 금속화폐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뤄봐서 돈의 역사는 역사시대와 나란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형태야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증거다.

고대 인도의 돈은 소머리였다.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소돈은 소머리를 뜻하는 capitu라고 불렀다. 현대에 일인당 국민소득을 말할 때 쓰는 일인당을 뜻하는 per capita나 자본(capital)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르투갈에서 담배가 포로를 사이에서 돈으로 자연스럽게 대체된 사실도 하나의 역사적 경험이다.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는 돈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가치의 보장

사실 돈의 존재는 시간의 존재에 기인한다. 돈은 그 자체를 소비할 수 없다. 미래 시점에서 종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지폐는 아무 소용이 없고, 금 또한 미래 시점에서 누군가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미래 시점까지 가치가 보존되지 않으면 그 돈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오늘날의 가치를 미래로 이전시키는 궁극적인 수단이 바로 화폐

다. 주식이나 채권도 결국 최종적으로 화폐로 전환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화폐가 사라진 중세와 그렇지 않은 시대를 비교하면 화폐가 세계를 어떻게 바꿨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분업을 촉진하고 시장을 넓히는 수단 역시 화폐였다.

역사적으로 돈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가 고안됐다. 초기 돈에서 공통적으로 살피볼 수 있는 것은 지배자의 초상이다. 이것은 지배자의 권위가 돈의 가치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도 있는데 이것은 하늘이 화폐가치를 보장한다는 상징이다. 돈의 명칭인 Money도 바로 이 점을 반영한다. Money는 그리스의 여신 모네타(Moneta)에서 유래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화폐의 핵심은 가치의 보장이다. 로마시대에는 그 가치를 보장한다는 황제가 스스로 가치를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로마의 멸망을 재촉했다고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다. 매년 정부가 만든 화폐로만 세금을 내게 했는데 탈세를 막기 위해 화폐의 형태를 매년 바꿨다. 연말에 갖고 있는 화폐를 모두 정부에 갖고 가면 세금을 제하고 새로운 화폐로 교환해줬던 것이다.

문명의 수단은 석기에서 청동기로 철기로 바뀌었지만 화폐의 재료는 이와 다르게 발전해왔다. 조개껍질이나 돌에서 금속으로 그리고 종이로 바뀌었다. 금속 가운데 금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는데 그 이유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이 썩지 않고 녹슬지 않아 금속으로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경제가치로서 금은 변해왔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약탈한 금을 본토로 들여왔을 때 스페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부자가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가 다르게 빵값이 뛰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불행했던 것은 당시에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는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인데 그 이유는 금값의 폭락에 있었다. 금도 흔하면 다른 물건처럼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금이라고 꼭 가치를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역사적 교훈이다. 롤랜드 니체가 쓴 《Money》라는 책을 보면 금이 어떻게 화폐로 등장하고 어떻게 그 가치가 훼손되고 마지막에는 화폐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근대에는 국가가 화폐 공급 장악해

화폐가치의 보전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지만 그 속성을 가장 잘 아

는 프리드만의 《Money Mischief Episodes in Monetary History》를 보면 화폐가치가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이유를 대체로 정부의 무지와 오만에서 찾는다. 특히 19세기 중엽 화폐재료로서 금과 은을 둘러싸고 금광을 갖고 있는 주와 은광을 갖고 있는 주 사이의 논쟁 끝에 탄생한 금본위제도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한다. 결국 화폐의 재료를 보유한 주가 승리했지만 이것은 화폐를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부다.

프리드만은 자유주의 경제학자지만 화폐제도만큼은 단일제도를 지지한다. 이에 비하면 에드워드 그리핀은 정부를 철저히 불신한다. 그가 쓴 《The Creature from Jekyll Island》는 미국 화폐공급의 본산인 연방준비제도가 정부와 록펠러 등 대재력가의 음모에서 나왔다고 주장한다. 금과 은을 둘러싼 다툼은 화폐를 장악하려는 주 사이에서 일어났지만 연방준비제도는 화폐를 장악하려는 재력가의 고도의 술수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은 정부의 무지와 오만에서 일어났다고보다 시장 경제의 속성 때문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화폐를 장악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화폐가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무이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회사의 소유권이고 토지문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지만 화폐는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다. 이런 이유로 고대에는 지배자가 장악했고 근대에는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란 무엇인가. 선거 때만 되면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은 왜 그럴까. 화폐를 국가가 장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장악하는 것이다. 그는 선출직에 앉아 있기 때문에 계속 화폐를 장악하려면 그는 그 자리에 계속 선출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선거철에는 화폐가치보다 자신의 자리가치 보전에 우선권을 둘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정부가 화폐를 잘못 관리한 탓으로 돌린다. 이것을 정치 경기변동이라고 부르는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의도적으로 화

폐관리를 왜곡하는 경우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모든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위해서는 자유경쟁을 권장하고 강요하면서도 돈의 생산은 정부 스스로 독점한다는 사실이다.

화폐 가치의 안정 위해 화폐의 역사 살펴야

하이에크는 돈마저도 자유경쟁 하에 생산해야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없애는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한다. 18세기 스코틀랜드와 19세기 미국에서 모든 개별 은행이 각자 고유의 은행권을 발행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현대에는 홍콩이 중앙은행 없이 각 은행이 각자의 은행권을 만들어 나란히 통용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홍콩에서는 은행이 파산한 적이 없다. 스코틀랜드 역시 한번도 은행이 파산한 적이 없었고 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적도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자유은행권제도를 실시한 주마다 결과는 다양하다. 결국 관련된 법과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하이에크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유럽국가들이 오래 사용해온 국가 화폐를 없애고 유로라는 새로운 단일 화폐를 만든 것은 하이에크의 주장에 역행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하이에크의 주장은 아직도 살아 있다. 화폐공급을 국가가 독점할 수밖에 없다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중앙은행을 정부에서 독립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화폐에 관한 이론은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화폐의 역사에서 얻은 경험은 19~20세기 수많은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론으로 탄생했다. 경쟁적 자유은행권이 됐든 독립적 중앙은행이 됐든 화폐가치의 안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스트에 따르면 화폐의 역사를 면밀히 살펴 이론을 만들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

김학은 교수는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지은 책으로 《화폐와 시간》 《화폐와 이자》 《화폐와 경제》 등이 있다.